

# 불교문화 포교로 민족 자긍심 고취를

### 부산 장산 원각사 9월 19일 문화예술제 개최

불무도, 녹차 음식 시연 등  
400여 지역 주민 큰 호응



부산 장산 원각사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문화 예술제를 개최했다. 불무도 총본산인 원각사는 불무도 시연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부산 장산 원각사(주지 안도)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원각사는 9월 19일 경내에서 '문화예술제'를 열었다.

이번 문화예술제는 다도 시연, 사찰 음식 시연, 불무도 시연 등 다양한 불교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며 불교문화를 향유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이어 시낭송 대회, 사경 전시 및 불화체험, 천연염색 체험 등 다양한 부스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는 주지 안도 스님,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원오사 정관 스님, 하태경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안도 스님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지만 우리의 전통 문화와 민족의 자긍심인 주체의식이 많이 상실되어 안타깝다"며 "우리의 얼과 전통문화를 부흥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주체의식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각사는 금강승 불무도의 총본원으로 이번에 진행된 불무도 시연은 큰 관심을 끌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기공법 및

어려운 고난이도 동작까지 3차례에 나눠 진행된 불무도 시연에서는 정중동을 보여 주는 불가의 전통무예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다. 금강승 불무도는 2500년 전부터 내려오는 불가 전통 수행법으로 본 명칭은 불교 금강영관이다. 청호당 양익 스님이 일제 강점기에 꿇린 맥을 1950년대에 발굴해 체계화했다. 주지 안도 스님은 양익 스님의 제자로 현재 일반 대중에게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으로 불무도 전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무도 시연을 처음 본 이미나(45)씨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전통 불교 무술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다"며 "원각사의 불무도가 불교문화 콘텐츠로 개발되면 중국 의 소림사보다 더 훌륭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진남(10)학생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지다"며 "평소 운동에 관심이 많은데 어디서 배울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을 정도"라며 소감을 말했다.

또한 원각사는 장산에 녹차밭을 직접 일궈 녹차제다 체험 활동을 펼치며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원각사에서 재배한 녹차를 재료로 사찰 음식 시연을 펼치며 대중에게 공양을 대접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선보인 음식은 총 8가지로 녹차 연근찜, 애호박 녹차전병, 녹차 무말랭이 무침, 고구마 녹차 샐러드, 녹차 장아찌 등 다양한 녹차 음식이 마련됐다. 특히 녹차 음식은 한번 녹차를 우려 마신 후 남은 차를 모

아 만든 것으로 찾아 활용도를 높여 건강 힐링 음식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희(50)씨는 "남은 차있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집에서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원각사는 금강승학당을 통해 불무도 수련, 다도, 불화, 사경, 참선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 프로그램으로 '원각사 녹차체험'을 진행한다. 또한 원각사는 금강승불무도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며 해마다 프랑스, 스위스, 미국 등 여러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불무도를 전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포교를 위해 국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템플 스테이도 진행한다.

하성미 기자

# 정수사, 창건 60주년 개산대재 법요식

9월 22일 사부대중 500여 명 참석... 정수사지 봉정도

전쟁 피난민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안식처 부산 용두산 정수사(주지 일준)가 창건 60주년을 맞아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정수사는 과거 60년을 초석으로 삼아 더욱 발전하고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정수사는 9월 22일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부산시중구청장 김은숙 및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0주년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은 정수사 편액 제막식, 정수사지 봉정, 봉행사와 축사 및 난타공연, 축가, 축시 등으로 진행됐다.

주지 일준 스님은 "1954년 용두산 일대의 큰 화재로 슬픔과 애환에 빠진 부산 시민들과 함께 해왔다. 또한 365일 쉬지 않고 펼쳐지고 있는 무료급식소 기쁨의 집을 비롯해 정수사는 부산의 중심지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오늘 행사는 개산 100주년을 맞이할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용두산 정수사는 9월 22일 '60주년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주지 일준 스님이 정수사지를 봉정하는 모습

# "함께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 나뉘요"

부산생명나눔 10월 10일 걷기대회 예정

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제7회 희망세상 만들기' 생명나눔걷기대회를 10월 10일 오후 2시 부산 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연다.

올해 7회를 맞은 생명나눔걷기 대회는 환우와 가족을 초대해 격려하고 걷기 캠페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된다. 환우와 가족, 자원

봉사자들과 기업봉사 단체 등 1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인 이번 대회에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부대행사로 무료건강검진, 무료차시음, 장기기증·자살예방안내부스,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토퍼러리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풍선아트 등이 진행된다. 체험부스와 현장점수는 당일 오전 11시30분부터 이용 가능하다. (051)853-0429 하성미 기자

# 범어사, 스님들 소장품 공개 전시... 글 공예 미술품 등

9월 21일~25일, 부산 시청 전시실서

광복 70년과 부산 범어사 개산 1337년을 기념해 범어사 스님들이 소장하고 있는 1910년대의 사진, 글, 공예품, 미술품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9월 21일~25일 부산 시청 전시실서 열린 이번 전시는 주지 수불 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스님들의 소장 작품 130여점과 인간문화재 금어 제작자들의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개막식에서 주지 수불 스님은 "범어사는 오랜 역사에 걸맞게 풍부한 불교사상과 문화유산을 간직해오고 있다"며 "범어사의 전통문화 자산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모두의 자랑이요 자부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범어사의 문화와 역사에 공감하고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범어사는 '제1회 범어사배 친선축구대회'를 10월 4일~18일까지 매주 일요일 마다 개최한다. 건전한 운동을 통해 불

참여해 전통방식에 따라 제작한 것이다. 아울러 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용학 스님의 연가문, 향운암 명천 스님의 기마 승선도, 청암사 유리원 설민 스님의 수월백의관음도, 석공 스님의 범어사 전경 사진도 감상할 수 있었다.

범어사는 9월 21일~25일 범어사 스님들이 소장하고 있는 1910년대의 사진, 글, 공예품, 미술품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이번 전시는 광복 70년과 범어사 개산 1337년을 기념해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개최됐다.

교계의 친선도모와 불법홍포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축구 대회에는 통도사, 범어사와 경주석림회, 죽구사랑, 흥법사, 한마음선원, 등 교구본사팀, 스님팀, 사찰팀과 초청팀으로 나뉘져 총 24개 팀이 출



범어사는 9월 21일~25일 범어사 스님들이 소장하고 있는 1910년대의 사진, 글, 공예품, 미술품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이번 전시는 광복 70년과 범어사 개산 1337년을 기념해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개최됐다.

전한다. 축구경기는 10월4일 오후 1시 양산종합운동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6강 결정전, 10월11일 준준결승전, 10월18일에는 준결승전과 결승전 통해 승리팀을 결정한다.

하성미 기자

# 장사상륙작전 순국선열 호국영령 위령제

영덕불교사암연합회, 9월 14일 기념탑사

영덕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담)와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9월 14일 장사상륙작전 기념탑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사암연합회 회장 현담 스님을 비롯해 이희진 영덕군수, 이강석 영덕군의회위원장, 류병주 참전유격동지회장, 김중수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박창표 경주보훈지청장, 이봉식 122연대장의 지역기관장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에는 순국선열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제를 봉행했다. 이어 50사단 군악

대 주악에 맞춰 국민례, 애국가 제창에 이어 50사단 부대장병들의 조총이 울려 퍼지며 호국영령들을 위로했다. 또한 류병수 유격동지회장은 강구중학교 박세운·축산중학교 조은아 학생에게 장사상륙작전 유격동지회장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기념공연으로는 영덕군여성합창단 상임지휘자 정하해 씨가 학도병을 추모하는 '청춘의 불꽃아! 장사 학도병'을 독창했고, 영덕군여성합창단과 지역아동센터 연합으로 구성된 조이플 추모곡 합창도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 6.25 참전 태국군 위령 영산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제보존회에 오는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태국군 한국전쟁참전기념 영산대재를 태국 람인트라 참전용사비에서 개최합니다.

세계의 중요무형 유산인 영산대재를 태국에서 개최하는 뜻 깊은 자리에 일반 참관불자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동참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봉원사 02)392-3007~8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사기간** 2015년 10월 15일 ~ 20일

**영산대재 봉행** 2015년 10월 16일

**장 소** 태국 방콕 람인트라 (참전용사촌)

**문 의** 천년고찰 봉원사 02)392-3007~8 (보존회장 선암스님)

**주 최** (사)영산제보존회 / 봉원사

※ 영산대재 봉행 후 파타야 / 아유타야 성지순례 진행합니다.





